

## 생명과와 선악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만이지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나, 그리고 그것을 왜 먹지말라는 명령을 하셨는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생명과와 선악과이고 없었으면 더 좋았다 생각합니다. 또 그런 명령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래전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시도해 왔고, 지금도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와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12 의 보충공부로서 생명과와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 :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 : 16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 1. 선악과와 생명과는 거기에 왜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죽음이 없는 불사성(Immortality)의 존재로 만드셨지만, 아직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영생의 약속을 가졌지만 아직 소유한바는 되지 못했습니다.

디도서 1 : 2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영생을 가짐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직접 소유할 수가 없어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 :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중보자인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주시기로 한 것은 피조물은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써 영광스럽게 살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에덴 동산이 구속의 절정으로 종착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아직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고, 아담이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은, 흠에서 온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변화함을 입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천신지에서 있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사탄이 아직도 존재하는 에덴 동산이 아닌, 사탄이 영원히 제거되는 신천신지에서나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의 약속을 하시고, 그 증거로 생명과와 선악과를 주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probation의 기간을 두시고, 그 probation의 기간을 믿음으로 지나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과로 상징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불순종을 하면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 선악과에 약속된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표징-sign-이 바로 생명과와 선악과입니다.

**A.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을 하실 때 생명과와 선악과와 같은 가시적인 약속의 표징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1.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9: 12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2. 다음에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면서 할례로 표징을 삼으신 것을 공부해 보십시오.

창세기 17 : 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3. 다음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성찬으로 기념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 : 19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 :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하시면서 가시적인 것으로 그 언약의 증표를 삼으셨습니다.

- B.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는가에 대해 성경적 증거를 찾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전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호세아 6 : 7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아담이 파기했다는 내용입니다..

- c. 생명과에는 어떤 언약이 있는가를 살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안에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삼위일체간에 약속하셨습니다.

디도서 1 : 2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1 :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을 창세전의 삼위일체간의 협약이라고 합니다. 생명과는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어거스틴은 생명과를 후에 오실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만드신 후, 아담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생명과를 그 약속의 증표(표징, sign)로 삼으신 것입니다.

생명과가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증표라는 것은,

창세기 3:22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는 영생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과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과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언약의 증표입니다.

창세기 3:22의 구절에 대해서 공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생명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다. 그러므로 타락 전에 아담은 생명과를 마음껏 먹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생명과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에는 아무런 언약이 없었다고 하면, 생명과는 있으나 없으나, 먹으나 안먹으나, 타락전이나 타락 후나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효험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존재를 특별히 지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구절에서 생명과를 지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 1. 아담은 타락전에 생명과를 먹었었나? 하는 사실을 공부하기 위해

창 3:22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lest he put forth his hand, and take also of the tree of life, and eat, and live for ever:

also 는 히브리어 gam 에서 온 말로 창세기 3:6 에서도 쓰였는데,

창세기 3:6 --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sup>6</sup>--- and gave also un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did eat. (Genesis 3:6 KJV)

이 구절에서 also 는 *new and additional act* 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도 먹고 새로운 행동으로 남편도 자기를 따라 먹게 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 new and additional act 를 3:22 에 적용하면,

선악과를 먹었음과 같이 새로운 행동으로 생명과도 먹으려 하면 이라는 말이 됩니다. *new and additional action* 으로 생명과를 먹으려 하면 의 뜻입니다.

.따라서 생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없으므로 타락 이전에 생명과를 먹었다는 것은 궤변이 됩니다.

영생을 얻는데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상징된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는 말은, 생명과의 요술성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는 생명과가 지시하는 바 영생의 약속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과를 먹지 않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견해는 창세기 3 : 22-24 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를 무의미한구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과의 역할을 아주지워 버렸습니다.

## 2. ‘영생할까 하노라(Live Forever)’ 의 의미(창 3:22)

창세기 3 :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 : 22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Live Forever) 하시고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먹는 경우, ‘생명 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immortality 를 말합니다. 여기서 immortality 를 어떻게 eternal life 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Live Forever 를 immortality 보다는 eternal life 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은 모든 타락한 자들의 불사성의 회복은 에덴 동산이 아닌, 내세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신 말씀은, 앞의 21 절과 연관시켜 해석하면(창 3 :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화해의 은혜는 베푸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생(Eternal Life)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예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D. 다음에는 선악과에는 어떤 언약이 있는가를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17 을 읽어 보십시오.

창세기 2 : 16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로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문자적 의미입니다.

우리 딸 은혜가 중학교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나쁜거야?”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결코 나쁜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면 금수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것은, 자연적 관계에 있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자연적 관계에 있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의 관계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관계에서 아담의 행위 판단의 기준은 아담의 마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덕법-율법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마음의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을 숭상하고 변명하는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최초로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어떻게 행동해야할 생활 수칙이며 안내판입니다. 선악과를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 없이 태어난 아담에게 있어서는 불사성을 유지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 율법을 넘어가면 불사성을 상실하고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이 금해진 명령을 넘어가면 하는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선악과를 먹는 것에는 아담 자신이 “선과 악의 결정의 자율적 존재가 된다’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선악과를 먹는것을 금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의미라고 창 2:9 의 Commentary<sup>1</sup>에서 말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종속 관계를 깨뜨리고, 아담 자신이 선과 악의 결정에 대한 자율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나아가면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은 선행을 자기의 영생 취득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이 됩니다. . 이것은 죽음으로 결과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web-page 로 가셔서 , “좋아요(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도움이 됩니다.

---

<sup>1</sup>. We now understand what is meant by abstaining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namely, that Adam might not, in attempting one thing or another, rely upon his own prudence; but that, cleaving to God alone, he might become wise only by his obedience.(Gen 2:9)